



자전거 열풍 인프라 구축 활발

광주·전남 자전거 도로 1532km ... 자전거 터미널·보관소 곳곳에

안전 교육·의식 부족 사고도 급증 ... 속도 제한 등 법규 정비·도로 시설 개선 시급

자전거 인구가 급증하면서 광주·전남 지역의 자전거 관련 인프라 구축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만 자전거 도로만 1532km가 깔려 있고, 자전거 터미널·자전거 보관소 등이 곳곳에 운영되고 있다. 자전거 이용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안전 교육 부족과 이용자의 안전 의식 미흡으로 자전거 사고도 급증하고 있어 속도 제한 등의 법규 정비 및 자전거 도로 시설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 총 연장 1532km=광주 지역 자전거 도로는 총 184개 노선에 511.82km에 달한다. 이 중 자전거 전용도로는 11개 노선에 65.03km이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439.39km에 이른다.

자전거도로는 광산구가 65개 노선에 182.70km로 가장 많고, 이어 ▲북구

38개 노선(121.16km) ▲서구 37개 노선(98.74km) ▲남구 24개 노선(57.64km) ▲동구 20개 노선(51.58km) 순이다. 전남 지역 자전거 도로는 22개 시·군에 304개 노선에 777.1km에 이른다.

이중 자전거 전용도로는 30개 노선에 95.7km이며,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는 269개 노선에 663.2km에 달한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5개 노선에 18.2km다.

자치단체별 자전거 전용도로는 목포시가 132.10km(42개 노선)로 가장 길고 ▲순천시 105.70km(24개 노선) ▲여수시 101.19km(61개 노선) ▲나주시 96.40km(23개 노선) ▲광양시 82.36km(37개 노선) 등의 순이다. 자전거 도로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은 완도군 3.39km(4개 노선)과 진도군 5.50km(2개 노선) 등이었다.

여기에 담양~목포 간 영산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244km를 더하면 광주·전남지

역의 자전거 길 총 길이는 1532.92km에 달한다.

◇자전거 터미널 등 인프라 구축 활발=광주에는 현재 자전거 보관대 2471개가 설치돼 3만2268대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다. 무료로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공공 자전거 대여 장소도 91개로, 882대의 자전거를 무료로 빌려 사용할 수 있다.

광주시는 특히 지난 2일부터 강변 자전거 길에 거점 터미널 5곳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거점 터미널은 첨단교·산동교·극락교·광천2교·어등대교 등이며,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전거 무상수리와 안전교육, 임시보관, 자전거 도로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전남에는 1490개의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돼 20만91대를 수용할 수 있다. 또 자전거 안전시설 9250개를 설치해 안전사

고에 대비하고 있다. 전남도는 내년 1월까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용역이 진행 중이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시·군과 연계된 자전거 도로 설치 노선 선정,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및 대중 교통과의 연계성 확보 방안 등이다.

◇자전거 사고 급증=광주와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에선 올들어 지난달까지 330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279건에 비해 15.45%가 증가한 것이다. 전남 역시 지난 8월 말 기준 91건으로 지난해 77건보다 크게 늘었다.

자전거 동호회 회원인 류모(45)씨는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운전자의 부주의도 있지만, 안전시설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며 "특히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상의 불법 주차나 도로 주변 나뭇가지로 인한 시야 방해 등으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로호 조립 완료 우주 향해 '스탠바이'

고흥 우주센터 긴장감

"나로호 상단의 전자탑재부, 키모터, 페어링, 나로과학위성에 대한 성능 점검을 끝내고 추진체와 총조립하는 등 우주로 향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2일 오후 2시 고흥 나로우주센터 조립동에서는 한국과 러시아 연구원 50여명이 나로호 상단과 1단을 조립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추진체와 상단을 결합하는 이 작업은 나로호 발사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작업이기 때문에 연구원들의 눈빛이 뜨거워져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무전동 차량에 실린 나로호 상단이 조립동에 도착하자 대형 크레인이 3m에 달하는 나로호 상단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조립동에서 미리 조립한 추진체에 상단을 붙이는 게 이날 작업의 핵심이었다. 나로과학위성 등 전자부의 부주의도 있지만, 안전시설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며 "특히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상의 불법 주차나 도로 주변 나뭇가지로 인한 시야 방해 등으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로우주센터 발사체추진기관실 박정주 실장은 "오늘 발사체 조립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모든 실험이 마무리되면 마지막으로 폭발성 부품을 조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나로우주센터는 최근 개별 성능점검을 마친 후 발사대와 발사체 연계 시험을 했고, 3일부터는 발사대시스템의 발사운용모드 전환 작업을 진행한다. 실질적인 발사 시스템을 가동한 셈이다. 또 나로과학위성은 지상국과 초기접속 시험을 4일부터 시작해, 발사예정일이 임박한 시기에 배터리 상태 최종 점검과 충전 작업을 한다.

나로호체계종합팀 원유진 선임 연구원은 "상단을 총격 없이 옮기고 조립하는 어려운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발사 준비가 순조롭다"면서 "나로과학위성이 성공적으로 우주에 도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연구진이 힘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6~31일 사이에 발사되는 나로호는 발사예정일 이틀 전 발사대에 장착되며, 하루 전 발사리허설을 거친 후 발사 당일 시나리오에 따라 우주로 향한 첫발을 내딛게 된다.

/고흥=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성공적으로 끝났고, 모든 실험이 마무리되면 마지막으로 폭발성 부품을 조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나로우주센터는 최근 개별 성능점검을 마친 후 발사대와 발사체 연계 시험을 했고, 3일부터는 발사대시스템의 발사운용모드 전환 작업을 진행한다. 실질적인 발사 시스템을 가동한 셈이다. 또 나로과학위성은 지상국과 초기접속 시험을 4일부터 시작해, 발사예정일이 임박한 시기에 배터리 상태 최종 점검과 충전 작업을 한다.

나로호체계종합팀 원유진 선임 연구원은 "상단을 총격 없이 옮기고 조립하는 어려운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발사 준비가 순조롭다"면서 "나로과학위성이 성공적으로 우주에 도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연구진이 힘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6~31일 사이에 발사되는 나로호는 발사예정일 이틀 전 발사대에 장착되며, 하루 전 발사리허설을 거친 후 발사 당일 시나리오에 따라 우주로 향한 첫발을 내딛게 된다.

/고흥=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신대학교

2013학년도 학부 수시 2차

■원서접수: 11. 12(월)~16(금)

2013학년도 대학원

■원서접수: 11. 12(월)~30(금)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한·중 명량대첩 수군 재건 자전거 랠리

4일부터 7개 시군 순례

한국과 중국 철인들이 명량대첩축제(10월5일~10월7일)의 서막을 알리는 수군재건 랠리에 나선다.

한·중 철인연합회 회원들은 4일 구례군 청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도내 7개 시·군을 2박3일 순회하는 자전거 랠리를 시작한다.

수군재건 랠리는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의 여정을 마치고 삼도 수군통제사로 임명된 이후 전라도 민초들의 구국의 열망을 결집하는 과정을 연출하는 것으로 명량대첩축제의 시작을 대내외적으로 알

리는 첫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전남 철인 3중경기연합회 김재원 회장의 초청으로 중국 각지의 철인클럽 회장과 중국 언론인, 중국 현지 여행사 관계자 전국 각지의 철인 클럽 대표 등 70여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구례군청을 출발, 곡성군·순천시·보성군·장흥군·강진군을 거쳐 해남 우수영 축제장까지 탐험 예정이다. 수군재건 랠리단이 랠리를 마치고 축제 현장에 도착하면 단장이 이순신 장군에게 각 지역의 의지가 결집한 수군재건 깃발을 전달하는 것으로 명량대첩 축제가 시작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자전거 음주운전 등 제재 강화해야"

행안부 전국 1065명 조사

자전거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은 자전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초 만 19세 이상 일반인 1065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2%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 등 제재에 찬성했다.

응답자들은 ▲휴대전화 이용(80%) ▲야간라이트 미사용(71%) ▲과속(65%) ▲안전모 미착용(56%)에 대한 벌금 등 제재에도 과반수가 찬성했다.

자전거 이용 중 위험요소별 인식도 조사에서는 음주 운전에 대해 99%가 '매우 위험하다' 또는 '다소 위험하다'고 답했다. 이어 휴대전화 이용(97%), 과속(96%), 야간라이트 미사용(95%), 안전모 미착용(87%) 등에 대해서도 '위험하다'는 응답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행안부가 같은 설문조사를 자전거 이용자 161명을 상대로 진행한 결과 동호인들은 자전거 이용 중 위험행위를 ▲야간라이트 미사용(98%) ▲휴대전화 이용(98%) ▲안전모 미착용(96%) ▲음주(96%) ▲과속(89%) 순으로 꼽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빛의만경

- 김중두



오늘은 대권후보 '면접 보는 날'

JNJ TOUR 정남진투어

여행의 모든 것을 한번에!

문의전화 1577-7616

- Event .1 2인 예약시 관광지무료쿠폰!
3인 예약시 렌트24시간 중형차급!
4인 예약시 아이스 뮤지엄 2매!

- Event .2 선박 20% 할인!

쿠폰01

노력항내관광지 할인쿠폰

쿠폰02

노력항내 펜션 리조트 호텔 할인

쿠폰03

노력항내 렌터카 할인

정남진 투어에서는 제주도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배타고 가는 제주여행~! 일~목 149,000
제주여행 PKG 금~토 169,000
한라산등반 1박2일 129,000



일정안내

- 1일자 중식/수목원테마파크(세계적인 열음조각 열음공전과 트릭아트전시관)/도깨비 도로(거꾸로 올라가는듯한 자동차) 신비한 착시현상/한라 수목원(60여종의 희귀식물과 광이오름을 끼고 삼림욕의 최고명소)/천왕사(한라산 정맥에 기암괴석들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아름다운절)/석식 후 숙소이동
- 2일자 조식후 전일관광/유리의성(세계의 유명한 유리예술 조형물이 실내_외에 대규모로 전시되고있) /화산 꽃자왈 화산생태 숲길 올레길(40분)/점보빌리지(코끼리소 국내 유일의 세계 최대 코끼리 테마 소) /중식/쉬리언덕(롯데 풍차정원-중문해수욕장 아름다운 올레길) /'직불관광'(서귀포 칠십리 유람선 OR 데마파크 / 서귀포시) /석부작갈매기 마동원(황금물결이 춤추는 갈골밭과 제주 특산물 재배 현장체험) /천지연폭포(하늘과 땅이 만나는곳) 기암절벽에서 떨어지는 폭포수) /새연교(작고 아름다운 무인도 새섬을 연결한 아름다운 무지개 다리) /시크릿성테마파크(누드조각, 누드미술관, 성문화관 등 예술로 승화된 종합성문화공원) /석식후숙소이동
- 3일자 조식후 전일관광/공예품 전시장(제주만의 특색을 살린 제주공예품들) /선녀와누구(60~70년대 그때 그시절로의 여행) /'직불관광'(매직마술쇼OR몽골리안 마상쇼) /제주마 승마체험(제주도의 상징 제주마와 함께 짜릿한 승마체험) /중식/성민속마을(전통초가 관람 제주인의 역력스런 생활 엿보기) 일출랜드(천가지 아름다운이 있는곳 미천동굴과 자연테마공원) /신양섬시코지(자연 수석장으로 불리는 해안 절경 명소, 성신일출봉 조망) /아트랜드(분재와 미술관의 만남 귀여운 반달곰의 재롱도 특별함을 선사함)

포함사항 : 전일장/입장료/주식2회/중식3회/석식2회/숙박료/차량료/ 안내가이드/주차료/간식/생수
불 포함 : 기사,가이드 봉사료(1인 1만원)/직불관광2회 기타등.

NAVER 정남진투어 검색 를 검색하세요!